



범주해운

임직원 연말 봉사활동

범주해운(대표 이상복)은 지난해 12월18일 동대문구 전농1동에 위치한 다일공동체 밥퍼에서 임직원 33명이 참여, 봉사활동을 해 이웃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연말에 우리보다 못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범주



해운 이상복 사장을 위시하여 많은 임직원들이 음식조리, 배식, 설거지, 야채 다듬기 등의 일들을 술선수범하여 정성껏 일했다.

범주해운 임직원들은 이날 총 850여명의 독거노인 및 노숙자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배식했으며, 이들 불우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내의 100벌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범주해운 총무팀은 "준비도 미흡하고 인원도 한정되어 많은 임직원이 참여할 수 없었지만 내년에는 준비도 철저히 하고 많은 임직원이 참여하여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썸브마운틴그룹

중국 상해대표처 설립

썸브마운틴그룹(회장 임병석)이 중국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 최근 중국 상하이(상하이 홍콩뉴월드타워 2302호)에 썸브마운틴/세양선박 상해대표처를 설립했다.

썸브마운틴 그룹은 지난해 12월9일 중국 상하이에서 국내외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처 개소식을 갖고 향후 이 대표처가 중국관련 해운사업 다각화 추진과 함께 그룹의 중국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서 썸브마운틴그룹의 임갑표 부회장은 "상해는 중국 물류산업은 물론 경제의 중심지"라며 썸브마운틴그룹은 상해 대표처를 산동성의 황해해리 일조 대표처와 함께 중국시장 진출의 양 전진기지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하이 대표처(처장 방기천)는 우선적으로 해운물류 관련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이후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 구상등 썸브마운틴 그룹의 중국시장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상해대표처는 궁극적으로 현지법인화 과정을 거쳐 그룹의 중국시장 개척 중추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지법인 전환시 이 법인은 국제해상운수업무에 종사하는 합자 혹은 합작회사형태를 띠 것이라며 이르면 향후 1-2년내 법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갑표 부회장, 계열사인 필그림해운의 김종진 대표, 방기천 상해대표처장등 그룹 관계자들과 중국 상해 세관 쉬춘건 부세관장, 한국외환은행 상해분행 서규태 행장 한국산업은행 상해 분행의 박동주 부행장, 흥아해운 김



태군 중국 본부장, 남성해운의 김영수 상해 수석 대표등 한중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상하이대표처의 설립을 축하했다.

유코카캐리어스

불우이웃 성금 1억 전달

유코카캐리어스(대표 칼-요한 빌헬름헤그만)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12월 28일 전국 각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해양수산관련 저소득층 불우이웃들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위문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불우이웃시설 25개소에 각 100만원씩 2,500백만원과 불우가족 150가구에 각 50만원씩 7,500백만원 등 총 1억원이다.

이번 행사와 관련 해양부는 생계가 어려운 선원, 낙도주민, 도서어촌계, 불우이웃시설 등의 위문대상을 선정하고 유코카캐리어스는 선정된 불우이웃들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해양부는 이 같은 행사가 계속 사회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관련 업·단체에 전파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관련협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유코카캐리어스는(주)는 유럽, 북미, 중동 등 110여개국에 자동차 및 중장비 등 수송하는 자동차 수송전문회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창명해운

이경재 사장 올해 인물 선정

창명해운 이경재 사장은 한국해운신문이 선정한 외항선사부문 '2004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한국해운신문은 매년 연말 해운·항만·물류

2004 올해의 인물' 선정 기념패 증정식



등업계에서 한해를 빛낸 인물들을 뽑아서 지상에 소개하고 그 공적을 기리는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고 있으며, 2004 올해의 인물 외항선사부문은 창명해운 이경재 사장이, 항만산업부문은 부산항만공사 추준석 사장이, 복합운송부문은 삼영물류 이상근 사장이, 조선부문은 STX조선 강덕수 회장이 선정됐다.

한국해운신문은 창명해운 이경재 사장을 비롯하여 삼영물류 이상근 사장, (주)신동디지텍 장철순 사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28일 1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무궁화홀에서 기념패 증정식이 이루어졌다.

티피씨코리아

CEO 등 인재 공모

티피씨코리아(대표 정신중)은 최근 사세확장에 따라 CEO와 부서장급 등 아래와 같이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 부문

- C.E.O 1명 (45 - 60세)
- 부서장 1-2명 (40 - 50세) : 영업부
- 팀장 4-5명 (30 - 40세) : 영업부 2-3, 관리부 2명
- 팀원 5-10명(25-35세) : 영업부 대리, 사원

2. 자격 요건

- C.E.O : 인사, 조직관리 유경험자로서 직원들의 능력을 배가 시키고 회사의 미래를 설계 하실 수 있는



덕망있는 분.

- 부서장 : 해운영업(벌크선) 유경험자로 회사와 함께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꿈이 있는 분
- 팀 장 : 영업부 - 용선, 벌크영업 전문가(2-3명)
- 관리부: 회계사로서 기업회계에 정통하신 분(1명) 변호사로서 국제관계/해운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1명)
- 팀 원 : TOEIC 900점 이상자로 해운업계 최고가 되고자 하시는 분.

3. 대우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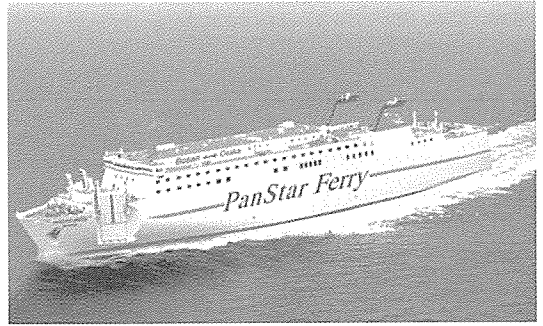
- 연봉제 및 연말 성과급제 시행. (경력 및 직급에 따라 연봉 별도 협의)
- 동종 업계 최고 대우 보장함.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이력서, 건강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 C.E.O : 회사 발전 방안 제안서, 인사 조직관리 제안서
- 부서장 : 영업제안서, 조직관리 방안 제안서
- 팀 장 : 영업, 운항 제안서
- 제출서류 마감 : 2005년 1월 15일
- ※ 1차(서류) 합격하신 분께는 1월 20일까지 직접 연락을 드리며, 2차 면접, 3차 최종합격 일정은 추후 연락드립니다.

5. 문의: (주)티피씨코리아, 담당자 : 실장 이 재효 (016-831-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7 동화빌딩 14층
 TEL/FAX/E-MAIL : 02-775-5888/ 775-7444/
 tpc@tpckr.com



초대형여객선인 팬스타드림호(2만 1000톤급)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항을 출발해 태종대를 지나 물운대에서 낙조를 감상한 후 오륙도를 경유해 광안대교 해역에서 1박을 하고 일요일인 다음날 해운대에서 일출을 감상한 뒤 오전 9시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온다.

팬스타드림호는 선상카페, 가라오케, 사우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고시속 25노트에, 55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크루즈선 이용요금은 식사를 포함해 객실종류에 따라 22만원, 12만 8000원, 10만 8000원, 9만 3000원, 8만 8000원 등이다.

주말 크루즈여행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부산연안여객터미널에서 표를 구입하면 된다. 국내에 크루즈관광이 도입되기는 지난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에 이어 두 번째다.

(예약문의) 팬스타라인닷컴 (051-462-5482, 051-469-6131)

팬스타라인닷컴

부산항 주말크루즈 취항

팬스타라인닷컴(대표 김현겸)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매주 토요일 부산 앞바다에 크루즈관광선을 투입, 운항하고 있다.

크루즈선은 현재 부산과 오사카간을 운항하는

한진해운

'사랑나눔 연주회' 개최

한진해운(대표 박정원)과 계열사인 사이버로직텍 직원들이 중심이 된 색소폰 동호회가 12월24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제 1회 사랑나눔 연주



회를 가졌다.

한진해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동 행사에는 박정원 사장과 임직원을 비롯해 입주 회사 직원들도 자리를 같이해, 이웃 사랑의 정신을 함께 했으며 즉석 모금을 통해 나눔의 정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색소폰 동호회 회장인 한진해운 안철용 부장은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특별한 날에 행사를 가지게 되어 더욱 뜻깊었고, 이번 연주회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음악회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진해운은 지난 12월21일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2004 청소년 육성대상 기업부문 대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500만원도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비로 기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진해운은 사내 봉사 동아리인 '이웃사랑'을 통해 매월 직원들이 납입하는 회비와 회사 출연금을 모아 소년 소녀가장과 무의탁 노인 20여명을 도와왔으며, 한국 어린이 보호 재단을 통해 수술비 마련이 어려운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현대상선

2004 7대뉴스 선정

현대상선(대표 노정익)은 '바다소리 웹진' 12월

호에 7대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 현대그룹 비전선포

현대그룹은 2004년 8월18일 현정은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사장단 및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비상, 현대 2010!'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 현정은 회장은 "꿈과 희망을 향한 도전과 창조적 예지로 풍요로운 내일을 창조한다"는 경영이념을 제시하고, 2010년까지 투자규모 확대 및 매출 20조원 달성을 통해 재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미래 비전을 밝혔다.

▷ 사상최대 실적시현

현대상선의 3분기 결산 결과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한 3조 7,601억원, 영업이익은 105% 급증한 4,452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 적극적 IR활동으로 대내외 신인도 제고

2004년 5월11일 국내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5월 말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 지역 IR을 시작으로 유럽, 미주 지역을 방문하며 해외 IR 활동을 펼쳤다. 경영 성과 및 비전 등을 알린 결과 대외 신인도와 회사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었다.

▷ 적극적인 선박투자 강화

2003년 말부터 신규발주 및 중고선 도입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컨테이너선 11척, 유조선 8척, 벌크선 2척 등 총 21척의 선박을 새로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무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적기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잇따라 최우수 선사로 선정

현대상선은 지난 2004년에 국내외 우수 기업 및 단체로부터 잇따라 최우수 선사상을 수상하며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다.

▷ ISPS 인증확보 조기완료

2004년 7월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에 맞춰 모든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승인을 조기에 완료했다.

▷ 직원만족 경영통한 단합유도

노정의 사장은 축구, 농구, 인라인 스케이팅, 산악회 등 사내의 10여개 동아리를 순회하며 직원들과 맥주잔을 나누는 '호프데이' 행사를 진행하여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대리모 승진한 직원들에게 선박운항 지식을 습득하고 해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해외 승선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흥아해운

연운항훼리(주) 설립

흥아해운(회장 이윤재)이 인천-연운항 카페리선 운항을 위해 연운항중한류도유한공사의 한국 대리점업체인 연운항훼리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흥아해운은 자본금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연운항훼리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등기를 완료했다고 지난해 12월20일 밝혔다.

연운항훼리(주)의 대표이사직은 영업파트 정상

영 이사가 선임됐다. 사무실은 흥아해운내 임시 사무소가 마련되었으며 다음주에 인천여객터미널 안에 마련된 사무실로 옮길 예정이다. 구성은 흥아해운 직원과 신규직원 총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인천-연운항간 카페리항로는 지난해 11월11일 광양에서 개최된 한중해운협의회에서 개설하기로 합의된 바 있으며 이미 한국측 파트너인 흥아해운이 카페리 항로 개설을 준비해 왔다.

흥아해운은 인천-연운항간 카페리선을 운항하기 위해 16억 3230만원을 출자해 한중합작법인인 연운항중한류도유한공사(LIANYUNGANG C-K FERRY CO., LTD)을 설립중에 있다.

연운항중한류도유한공사는 인천-연운항 카페리항로 한국측 파트너인 흥아해운과 중국측 파트너가 설립예정인 중국법인으로 자본금 32억 6,460만원이며 이중 흥아해운이 16억3,230만원을 출자해 지분 50%를 인수하게 된다.

자옥란호는 승객 379명과 293teu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여객선으로 매주 화, 금요일 오후 3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3시 출항할 예정이다.

한국선급

노사평화 조인식 개최

한국선급(회장 이갑숙)과 한국선급 노동조합(위원장 홍영웅)은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소재 본부에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선급 노사평화 선언식을 가졌다.

2004년 임·단협 체결을 계기로 갈등과 대립적인 노사문화를 청산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선급의 비전인 세계일류선급으로



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다.

노사평화 선언문은 신뢰와 화합에 바탕을 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서로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무분규의 평화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대고객 신뢰도를 공고히 하고, 인력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및 성과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사평화 선언식에서 한국선급 이갑숙 회장은 "2004년 임·단협 협상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사건 중 가장 심려하였던 바는 고객들에게 많은 염려를 끼친 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간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였으며, 홍영웅 노동조합 위원장도 최근의 노사갈등의 표출은 한국선급이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거듭 양해를 구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북한/중국 항만개발사업 진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정이기)이 북한과 중국의 항만개발사업에 진출한다.

공단은 북한 남포항과 중국 다롄(大連)항의 항

만개발과 관리를 담당할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국양해운, 홍콩 동남해운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과 2개사는 남포항 개발을 위해 오는 3월께 북한과 함께 자본금 1백20억원 규모의 합작회사를 홍콩에 설립할 계획이다.

합작사는 남포항 배후지에 2만평 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오는 5월까지 완공,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합작사는 평양과 개성공단에 각각 6천평, 2만평 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지을 계획이다.

또 공단과 국양해운은 다롄항에 3만톤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전용부두 3선석을 오는 2008년까지 완공,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과 국양해운은 중국기업과 올해 하반기 자본금 1백억원 상당의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임현대 공단 조사기획팀장은 "현재 국양해운이 제3국을 통해 북한과 해운사업을 하고 있다"며 통일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절차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 인사 이동

고려해운

고려해운(대표 최영후)은 1월3일 오전에 2005년도 시무식 행사를 가진뒤 박노근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발령하는 등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부장 박노근(전산부장 겸 시스템개발팀장), 김석중(부산사무소 영업부장 겸 영업팀장) △차장이정국(전산부 시스템운영팀장), 황선범(재경부 자금팀장 겸 수입관리팀장), 오상목(운항관리부 운항팀장), 조용욱(컨테이너영업부 수입영업팀), 성정경(컨테이너영업부 프라이싱팀), 노기룡(컨테



이내업무부 고객센터서비스팀), 이해성(컨테이너영업부 마케팅팀), 박현배(호치민사무소장) 총 8명

△과장 김규홍(전산부 시스템운영팀), 김정달(운항관리부 운항팀), 이덕수(컨테이너영업부 수출영업팀), 최동훈(컨테이너영업부 수입영업팀), 최호연(컨테이너영업부 프라이싱팀), 이청규(선박관리부 공무자재팀), 김대봉(부산사무소 관리팀장), 김정훈(부산사무소 영업부 고객센터서비스팀), 김홍렬(울산사무소 영업팀), 이금석(쿠알라룸푸르사무소장) △대리 방근섭(전산부 시스템개발팀) 외 총 17명 △계장 김태환(기획관리부 총무팀) 외 총 8명

대양상선

대양상선(대표 정유근)은 1월1일부로 고수석 팀장을 파나막스임원(이사대우)으로 승진선임했다.

동남아해운

동남아해운(회장 양길용)은 2005년 1월1일부로 홍종문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임직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부장 홍종문(영업부문 영업1팀), 김종욱(부산 지역 해사팀) △차장 이영찬, 송성학, 김보식, 구자우, 김갑두, 박신규 △과장 박경학, 임용, 김남수, 김성중, 문보영, 양형석, 국평호, 문홍일, 손보갑 △대리 김욱, 옥성호, 임연택, 김광재

STX그룹

STX그룹(회장 강덕수)은 STX PanOcean 출범에 따라 완성된 해운-조선-엔진 사업의 수직계열화를 바탕으로, 각 계열사가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월1일자로 그룹 집행임원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6명이 임원으로 승진했다.

△STX : 빈일건(賓一健) 부상무(승진)

△STX조선 : 차상선(車相善) 부상무(승진)

△STX에너지 : 진영진(陳永辰) 부상무(승진), 방영석(方暎錫) 부상무(승진)

△POS : 이권희(李權熙) 상무(승진), 주경석(朱景錫) 부상무(승진)

장금상선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은 2005년 1월1일부로 정병주 상무를 전무로 승진발령하는 등 임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전무 정병주(관리본부), 이준구(영업본부) △상무 김남덕(운영본부), 이수진(부산사무소) △이사대우 이만구(영업본부 수출영업팀), 정영심(수입영업팀) △부장 양기원, 양무룡, 금창원, 이성욱 △차장 조병국 △차장대우 임양호 △과장 송국환 △대리 신기매, 강병주, 이진관, 이기용, 김주택, 이종관, 박민수 △계장 김태용, 류덕형, 문준영, 윤기방, 황수경, 유제호, 최승화, 김미경

조강해운

조강해운(대표 이광희)은 1월1일부로 영업팀 이대준 부장을 이사대우로 승진발령하는 등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사대우 이대준 △부장 하지수 △차장 선도영 △계장 박효식

팬스타라인닷컴

팬스타라인닷컴(대표 김현겸)은 2005년 1월1일부로 류익현 이사대우를 이사로 승진발령하는 등 임원급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사 류익현(재정부) △이사대우 최재형(경영 기획실장겸 부산총괄지사장)

SW해운

SW해운(대표 김경득)은 1월1일부로 사세확장에 따라 영업팀을 3개팀으로 세분화하는 등 직제 개편과 함께 팀장급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영업1팀장 백영호 △영업2팀장 김석호 △영업3팀장 이하우 △기획관리팀장 이학주 △해사팀장 윤욱 △운항팀

우림해운

우림해운(최종태)은 1월1일부로 최종석(崔鍾錫)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선임했다.

한진해운

한진해운(대표 박정원/www.hanjin.com)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 1월1일부로 중국지역본부장인 김황중 상무를 비롯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임원 총 12 명을 대거 승진 발령하는 등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임원 승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무 김황중(金煌中), 윤주식(尹周植), 조용민(趙容敏) △상무 고한성(高漢晟), 최건식(崔健植) △상무보 김중현(金鐘顯), 류재혁(柳在赫), 박길영(朴吉永), 이윤근(李倫根), 전용일(田溶一), 정부일(鄭富日), 최상규(崔尙奎)

현대그룹

현대그룹은 1월1일부로 현대아산 이윤수 상무를 전무로, 현대상선 김창우 상무보를 상무로 승진발령하는 등 16명에 대한 임원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전무 현대아산 이윤수(李鈞洙), 현대아산 채희태(蔡熙泰), 현대택배 허철, 현대경제연구원 조성용(趙成用) △상무 현대상선 김창우(金昶宇), 현대증권 장승철(張勝哲), 현대아산 서예택(徐禮

澤), 현대택배 이재복(李在馥),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韓相完), 현대경제연구원 윤봉락(尹鳳洛) △상무보 현대상선 김지택(金志擇), 현대증권 이장섭(李長燮), 현대아산 심상진(沈相振), 현대아산 김영현(金永炫), 현대택배 홍원흥(洪遠興), 현대경제연구원 유일한(柳一韓)

흥아해운

흥아해운(회장 이운재)은 김영철 과장을 차장으로 승진발령하는 등 정기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진 급] △차장 : 김영철(관리팀), 김축옥(수출영업팀), 이기상(영업팀), 오정혁(수입삼국간영업팀), 송택순(울산사무소) △대리 : 김경화(업무팀), 박흥미(수출영업팀), 김동훈(자카르타사무소), 윤희재(영업팀), 장석기(수입삼국간영업팀), 정훈(수출영업팀), 백운경(수출영업팀), 박병기(탱커팀), 황일영(인천CY관리팀), 유근규(수입삼국간영업팀), 김기원(전산팀), 유재식(수출영업팀), 이종범(컨테이너관리팀) △계장 : 임태범(수출영업팀), 박종진(수출영업팀), 최재무(수출영업팀), 김혜림(수출영업팀), 김태운(영업팀), 이제복(재무팀), 최선경(인천영업소업무팀), 김주화(업무팀), 이혜림(관리팀), 이정민(업무팀), 김명선(관리팀), 도유정(공무팀)

[주재원 변경]△동경사무소장 김경오 부장 → 탱커팀 팀장 △탱커팀장 홍재선 차장 → 기획/보험 팀장 △홍콩사무소장 김철 과장 → 수출영업팀 △대련(단동)사무소장 윤동식 과장 → 수출영업팀 △천진사무소장 박종석 대리 → 수입삼국간영업팀 △수입삼국간 영업팀 한영락 차장 → 중국본부 심천 사무소장 △수입삼국간 영업팀 박인호 계장 → 대련(단동)사무소장

△수출영업팀 백운경 계장 → 천진 사무소장 △운항팀 김석진 계장 → 일본본부 동경 파견근무